<h1>나 혼자만 레벨업-25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q497228d235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25화</p>  
<p>11. 정리</p>  
<p>C급 게이트에 다녀온 지 3일이 지났다.</p>  
<p>토요일이라 집에 일찍 온 진아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빠르게 신발을 벗어던졌다.</p>  
<p>"오빠 뭐야, 닭 시켰어?"</p>  
<p>"안 그래도 너 올 시간 딱 맞춰 시켜 놨다."</p>  
<p>"우왕!"</p>  
<p>식탁 옆에 앉은 진우가 손짓하자 진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쪼르르 달려왔다.</p>  
<p>"이야, 웬일이셔? 짠돌이 오빠가.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?"</p>  
<p>"야야, 가방부터 좀 내려놓고 와라. 무슨 여자애가 그리 성격이 급하냐."</p>  
<p>"됐거든. 가방 하나도 안 무겁거든?"</p>  
<p>얼마 전에는 가방 무겁다고 접이식 우산 하나 챙겨 가기 싫어했던 녀석이.</p>  
<p>진우는 혀를 끌끌 차면서도 자꾸 새어 나오는 미소를 숨기기 힘들었다.</p>  
<p>'좋은 일이 있었냐고?'</p>  
<p>당연히 있었다.</p>  
<p>오늘 통장의 잔고가 80만 원에서 1억8천30만 원으로 늘었다.</p>  
<p>1억8천은 마정석을 팔고 받은 돈이었고, 50만 원은 집주인 아저씨에게 집세로 보내드렸다.</p>  
<p>1억8천!</p>  
<p>레이드 한 번에 1억8천이란 거금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.</p>  
<p>헌터 생활은 꾸준히 해 왔지만 이제야 진짜 헌터가 된 기분이었다. 헌터하면 사람들이 돈부터 떠올리는 시대가 됐으니 말이다.</p>  
<p>마정석을 들고 찾아갔을 때 마정석 거래소 직원이 지었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다.</p>  
<p>"이, 이걸 혼자서 다 잡으신 겁니까?"</p>  
<p>"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."</p>  
<p>"세상에... 대단하십니다."</p>  
<p>C급 마정석 49개.</p>  
<p>처음 감정 가격은 3억이 조금 넘었다.</p>  
<p>하지만 세금이 그렇게 셀 줄이야.</p>  
<p>"세금이 40퍼센트나 된다고요?"</p>  
<p>"네. 개인이 판매할 때는 세금으로 40퍼센트가 나가고요, 길드가 판매할 때는 10퍼센트가 나갑니다."</p>  
<p>"길드의 세금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?"</p>  
<p>"길드들은 개인 공격대와 달리 동원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협조해야 하니까요."</p>  
<p>하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중 던전에서 사고가 있었을 때도 협회 감시과 직원들과 함께 '백호' 길드가 현장을 찾았다고 했다.</p>  
<p>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길드도 그만큼 국가와 협회의 부탁에 협조하는 거다.</p>  
<p>그래서 잠깐 고민을 했었다.</p>  
<p>'차라리 마정석을 가지고 있다가 길드에 가입한 뒤에 처분할까?'</p>  
<p>하지만 곧 단념했다.</p>  
<p>길드에 들어 활동할 때쯤엔 주 공략 대상이 A,B급 게이트가 될 것이다.</p>  
<p>거기서 나오는 마정석은 C급 게이트에서 나온 것과 가격을 비교할 수 없을 터.</p>  
<p>한 푼이 아쉬운 건 지금이었다.</p>  
<p>'세금 좀 줄이겠다고 당장 아무 길드 계약서에 함부로 도장을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.'</p>  
<p>"알겠습니다. 거래하죠."</p>  
<p>1억8천은 그렇게 나온 금액이었다.</p>  
<p>좋은 일 있냐는 진아의 말처럼 치킨과 맥주는 거금을 얻은 걸 기념하는 축하 파티였다.</p>  
<p>"잘 먹겠습니다."</p>  
<p>슬쩍 맥주 캔으로 손이 가는 진아의 이마를, 진우의 손가락이 강타했다.</p>  
<p>딱!</p>  
<p>"아야!"</p>  
<p>"넌 이거."</p>  
<p>진아 앞에 콜라 캔이 놓였다.</p>  
<p>"히잉... 장난 좀 친 건데..."</p>  
<p>빨갛게 변한 이마를 문지르는 진아를 두고, 진우는 시원한 맥주 캔을 따서 입안에 털어 넣었다.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진우가 기계음에 민감하게 반응했다.</p>  
<p>'갑자기 웬 시스템 메시지?'</p>  
<p>[해로운 성분이 감지되었습니다.]</p>  
<p>['버프: 해독'의 효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.]</p>  
<p>[3, 2, 1... 해독이 완료되었습니다.]</p>  
<p>'해로운 성분을 해독했다고? 설마 알콜을 말하는 건가?'</p>  
<p>진우는 남은 맥주를 다 마시고, 그 자리에서 한 캔을 더 뜯었다.</p>  
<p>꿀꺽꿀꺽.</p>  
<p>[해로운 성분이 감지되었습니다.]</p>  
<p>['버프: 해독'의 효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.]</p>  
<p>[3, 2, 1... 해독이 완료되었습니다.]</p>  
<p>역시나 같은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눈 깜짝할 사이에 맥주 두 캔을 비웠는데도 취기가 전혀 오르지 않았다.</p>  
<p>버프인지 뭔지 효과 하나는 확실했다.</p>  
<p>'뭐지?'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아직 버프를 걸어 주는 헌터는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었다.</p>  
<p>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헌터는 대부분 길드에서 일한다.</p>  
<p>협회 소속으로는 만날 기회도 없는 것이다.</p>  
<p>'만약 누군가 몰래 버프를 걸었다고 해도 시스템 메시지가 알려 줬을 텐데.'</p>  
<p>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.</p>  
<p>의식이 없을 때 버프를 받았다거나,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버프를 받았다는 것.</p>  
<p>개인적으로 후자에 더 무게가 실렸다.</p>  
<p>"오빠, 왜 그래? 체했어? 조심 좀 하지."</p>  
<p>진우의 표정이 심각해지자 진아가 걱정스레 물었다.</p>  
<p>"갑자기 급한 일이 떠올라서 그래. 너 먼저 먹고 있어."</p>  
<p>진우는 방으로 들어갔다.</p>  
<p>그리고 예전에 혹시 뭔가 놓친 것이 없는지 사소한 기억 하나도 꼼꼼하게 되짚어 보았다.</p>  
<p>'아.'</p>  
<p>번뜩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.</p>  
<p>'모든 퀘스트에는 보상이 있었다. 심지어 페널티 퀘스트까지. 그런데 유일하게 보상을 확인하지 못한 퀘스트가 있었지.'</p>  
<p>진우는 급히 메시지함을 열었다.</p>  
<p>당시는 시스템이 먼지, 보상이 뭔지 몰라서 그냥 넘겼었지만 그때 분명 퀘스트 완료 조건을 충족했다는 메시지가 떴었다.</p>  
<p>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.</p>  
<p>진우는 메시지함 가장 아래에 있는 메시지를 찾았다.</p>  
<p>[플레이어]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. (확인 완료)</p>  
<p>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.</p>  
<p>"확인."</p>  
<p>띠링.</p>  
<p>[본 시스템은 '플레이어'의 성장을 지원합니다.]</p>  
<p>[본 시스템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.]</p>  
<p>[보상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.]</p>  
<p>역시나.</p>  
<p>보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.</p>  
<p>지하 신전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목소리.</p>  
<p>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었다.</p>  
<p>['시크릿 퀘스트: 무력한 자의 용기'의 완료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습니다.]</p>  
<p>시크릿 퀘스트도 엄연한 퀘스트.</p>  
<p>그러나 아직 그 보상을 확인한 적이 없었다.</p>  
<p>그때는 망상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.</p>  
<p>[...불응할 경우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.]</p>  
<p>[보상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.]</p>  
<p>[보상을 확인하시겠습니까?] (Y/N)</p>  
<p>'예스.'</p>  
<p>띠링.</p>  
<p>'시크릿 퀘스트: 무력한 자의 용기' 완료 보상]</p>  
<p>대주술사 칸디아루의 축복</p>  
<p>당신의 용기에 탄복한 대주술사 칸디아루가 당신을 위해 특별한 주문을 선물했습니다. 칸디아루의 축복이 함께하는 한 당신은 늘 튼튼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.</p>  
<p>"도전자의 앞날에 광명이 있으라."</p>  
<p>-일시 효과 '재활의 의지': 손상된 신체의 모든 부위를 복구합니다.</p>  
<p>-지속 효과 '무병장수': 모든 질병과 독성 및 이상 효과에 면역상태가 되며, 수면 시 재생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.</p>  
<p>이제야 아귀가 맞아떨어졌다.</p>  
<p>'그래서 다친 다리가...'</p>  
<p>잘렸던 다리가 원 상태로 돌아온 것은 퀘스트의 보상 때문이었다.</p>  
<p>지금 맺구에 취하지 않는 것 역시.</p>  
<p>'잠깐, 모든 독에 면역 상태가 된다고?'</p>  
<p>진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.</p>  
<p>그럼 설마 이것도...?</p>  
<p>진우가 부랴부랴 창고에서 아이템 하나를 꺼냈다.</p>  
<p>[아이템: 카사카의 독샘]</p>  
<p>입수 난이도: A</p>  
<p>종류: 비약</p>  
<p>정제된 카사카의 독액이 담겨 있는 주머니입니다. 카사카를 잡으면 극히 희박한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. 독액을 마시면 단단한 피부를 얻게 되지만 독성으로 인해 근육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.</p>  
<p>효과 '카사카의 철갑 비늘': 물리 데미지 20% 감소</p>  
<p>부작용 '손상된 근육': 근력 -35</p>  
<p>'독성으로 인해 근육이 손상되는 거라면 해독 버프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?'</p>  
<p>알아보는 방법은 한 가지뿐.</p>  
<p>진우는 눈을 질끈 감고 주머니 안에 든 액체를 마셨다.</p>  
<p>꼴깍꼴깍.</p>  
<p>끈적끈적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.</p>  
<p>맛은 역하고 비렸지만 꾹 참고 먹었다.</p>  
<p>'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더니...'</p>  
<p>독액을 모두 삼키자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[해로운 성분이 감지되었습니다.]</p>  
<p>['버프: 해독'의 효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.]</p>  
<p>[3, 2, 1... 해독이 완료되었습니다.]</p>  
<p>['부작용: 손상된 근육'이 사라집니다.]</p>  
<p>"역시!"</p>  
<p>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.</p>  
<p>그래도 혹시 몰라 스탯창을 불러 왔다.</p>  
<p>'스탯.'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53 체력: 30 민첩: 53 지능: 30 감각: 35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물리 데미지 감소: 20%</p>  
<p>예상대로 근력의 감소는 없었다.</p>  
<p>근력은 53포인트 그대로였고, 물리 데미지 감소라는 새로운 능력치가 생겼다.</p>  
<p>물리 데미지 한정이지만 피해를 20퍼센트나 격감시켜 주는 경이로운 능력치였다.</p>  
<p>"좋았어!"</p>  
<p>진우가 새 스탯에 기뻐하고 있을 때, 거실에서 진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</p>  
<p>"오빠, 유진우라는 사람 알아? 유진우라는 사람이 오빠 찾는데?"</p>  
<p>"그거 아마 유진우가 아닐걸..."</p>  
<p>진우는 거실로 나가 동생이 들고 있는 수화기를 뺏어 들었다.</p>  
<p>"전화 바꿨습니다."</p>  
<p>-형님, 접니다. 유진호.</p>  
<p>역시나.</p>  
<p>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낯익었다.</p>  
<p>"...번호는 어떻게 알았냐?"</p>  
<p>-협회에 아는 분이 있어서요. 폰으로는 안 받으셔서 부득이하게 전화로.</p>  
<p>"용건만."</p>  
<p>-아! 죄송합니다, 형님. 그런데 전화로는 말씀드리기가 좀... 혹시 만나뵙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까요?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'얘는 그런 일을 겪고도 나를 만나고 싶나?'</p>  
<p>-꼭 좀 부탁드릴게요, 형님.</p>  
<p>하여튼 별난 녀석이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유진호의 간청에 진우는 딱 1시간을 허락해 주었다.</p>  
<p>약속 장소는 집 앞의 프렌차이즈 카페.</p>  
<p>[카페X네]</p>  
<p>평일이라 불구하고 점심시간 직후의 약속이라 카페 안엔 사람들이 꽤 있었다.</p>  
<p>"형님, 여깁니다!"</p>  
<p>유진호가 반갑게 인사했다.</p>  
<p>카페에 들어오기 전 감각을 극대화 시켰지만 다른 헌터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.</p>  
<p>적어도 보복이 목적은 아닌 듯했다.</p>  
<p>보복이고 자시고 딱히 앙금이 남을 만한 짓을 한 기억도 없지만.</p>  
<p>진우는 유진호의 맞은 편에 앉았다.</p>  
<p>"또 보게 될 줄은 몰랐네."</p>  
<p>테이블 위에는 유진호가 먹다 만 아이스크림이 놓여 있었다.</p>  
<p>유진호가 일어서며 물었다.</p>  
<p>"주문은 하셨습니까? 제가 커피 가져올까요?"</p>  
<p>"아니, 괜찮아."</p>  
<p>유진호는 왠지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시 앉았다.</p>  
<p>진우가 먼저 입을 뗐다.</p>  
<p>"근데 뭐 때문에."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"진짜 쟤가 그랬다니까? 완전 장난 아니었지 그때."</p>  
<p>진우가 옆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옆 테이블에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운동부 학생 세 명이 여자 셋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다시 대화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.</p>  
<p>"뭐 때문에 보자고."</p>  
<p>"내가 언제 그랬냐! 이 새끼 또 여자들 앞이라고 지어내는 거 좀 봐라!"</p>  
<p>"...보자고."</p>  
<p>"네가 그랬잖아! 와- 내가 사진 보여 줄까? 증거 한 번 쫙 까발려 봐?"</p>  
<p>남학생들 목소리도 컸지만 여자들이 깔깔거리는 소리도 만만치 않았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소음에 대화를 이어 나가기가 힘들 정도가 되자 진우는 하는 수 없이 일어서서 조용히 옆 테이블로 걸어갔다.</p>  
<p>남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우에게 향했다.</p>  
<p>"좀 조용해 주시겠습니까? 여기 다른 사람도 많으니."</p>  
<p>남학생 하나가 뒷머리에 손을 얹고는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는 시늉을 했다.</p>  
<p>"예, 예. 조용히 할게요. 미안하게 됐슴다."</p>  
<p>그 모습에 여자들이 킥킥거렸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는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돌아섰다.</p>  
<p>그런데 돌아서자마자 뒤통수에 뭔가가 톡 부딪혔다.</p>  
<p>바닥에 떨어진 건 동그랗게 말린 종이 냅킨이었다.</p>  
<p>"푸하하하하하핫."</p>  
<p>"낄낄낄."</p>  
<p>"야, 그러지 마."</p>  
<p>남학생들은 대놓고 배를 잡고 웃었고, 여자들은 말리는 척하며 조소를 흘렸다.</p>  
<p>그 광경을 지켜보는 유진호의 얼굴은 서서히 얼어 갔다.</p>  
<p>"혀... 형님."</p>  
<p>진우가 유진호의 아이스크림 옆에 있던 안 쓴 스푼 하나를 집어서 카운터로 갔다.</p>  
<p>"저거 봐 봐. 이제 고자질하러 가네."</p>  
<p>"엄마, 저기 떠들어요. 말려 주세요. 푸흡."</p>  
<p>그 와중에도 뒷담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조마조마한 표정의 여점원에게 물었다.</p>  
<p>"이 스푼 얼마죠?"</p>  
<p>"죄송합니다, 손님. 저희 매장에서는 따로 스푼을 팔고 있지 않아서요."</p>  
<p>"만 원보다 비싸지는 않죠?"</p>  
<p>"예? 아, 예. 아마도..."</p>  
<p>진우는 계산대 위에 만 원을 올려놓고 돌아섰다.</p>  
<p>"손님? 저기, 손님?"</p>  
<p>진우가 여점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곧장 운동부 남학생들이 있는 테이블로 향했다.</p>  
<p>진우의 눈빛이 심상치 않자 남학생들이 자리에서 스윽 일어섰다.</p>  
<p>"뭐? 왜?"</p>  
<p>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그 테이블에 집중되었다.</p>  
<p>진우는 남학생들에게 들고 있던 스푼을 보여 주었다.</p>  
<p>'...?'</p>  
<p>'...?'</p>  
<p>남학생들의 얼굴에 물음표가 떠올랐을 때, 진우는 손에 쥔 스푼을 있는 힘껏 구기기 시작했다.</p>  
<p>진우의 손안에서 무참히 형태를 잃어 가는 스푼.</p>  
<p>남학생들의 얼굴색이 점점 퍼렇게 변하기 시작했다.</p>  
<p>톡.</p>  
<p>데굴데굴.</p>  
<p>테이블 위에 놓인 건 더 이상 스푼이 아니었다.</p>  
<p>공처럼 구겨진 쇳조각이었다.</p>  
<p>"헉!"</p>  
<p>남학생들은 침을 꿀꺽 삼켰다.</p>  
<p>'사람의 힘이 아니야.'</p>  
<p>'헌, 헌터다.'</p>  
<p>서로 눈치를 살피던 남학생들 중 종이 냅킨을 던진 녀석이 먼저 진우에게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"죄, 죄송합니다."</p>  
<p>다른 부원들도 연달아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"죄송합니다."</p>  
<p>"저희가 실수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"</p>  
<p>남학생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다가 여자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갔다.</p>  
<p>우와-</p>  
<p>테이블의 소음을 신경 쓰고 있던 주위 손님들이 진우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.</p>  
<p>진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.</p>  
<p>유진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.</p>  
<p>"역시 형님다우십니다!"</p>  
<p>"됐고."</p>  
<p>진우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갔다.</p>  
<p>"뭐 때문에 보자고 한 거야?"</p>  
<p>"저기... 형님.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. 정말 거듭 생각해 봤는데요. 아무래도 형님께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."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"뭔데 그래?"</p>  
<p>"형님, 사실은..."</p>  
<p>유진호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.</p>  
<p>"실은 제가 개인 공대 팀을 만들려고 하는."</p>  
<p>진우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.</p>  
<p>"거절한다.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